

국제다문화학과 제25회 콜로키움

- 날짜 : 2024. 3. 25. 오후 6시
- 장소 : 웹엑스(비대면)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

한국다문화사회---국제결혼 자녀교육 문제 연구

담당교수:서은숙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

후운용

2023120503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한국 다문화가족의 배경-----	2
제 3 장 한국 다문화가족의 주요 국가 조합-----	3
제 1 절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제 2 절 한국--중국 국제결혼	
제 3 절 한국--일본 국제결혼	
제 4 절 한국--필리핀 국제결혼	
제 4 장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10
제 1 절 언어 능력	
제 2 절 경제 문제	
제 3 절 문화	
제 4 절 사회	
제 5 장 다문화가족의 교육 문제-----	13
제 6 장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문제 해결 방법 모 색-----	14
제 7 장 결론-----	16

제 1 장. 서론

세계화가 발전함에 따라 교통과 통신은 더욱 단순화되었으며 특히 경제의 발전을 촉진했다. 관광, 무역, 유학 등 주요 방식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점점 더 자주 교류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이런 영향 아래서 계속 발전하고 약화되는 추세는 없다. 앞으로 국제결혼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한국이 1990년대 이후 다문화 가정사회에 진입한 것은 국가 경제발전 수준과 직결된다. 국제결혼은 인구 이동이 잦아진 탓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농촌 미혼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제결혼은 다문화 가정을 양산하고 자녀 수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문화가정을 알기 위해서는 주요 그룹 형태부터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가 언어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녹아드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한 부부, 양가 부모, 자녀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목적은 한국인과 결혼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 생활은 기본적인 언어적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차이를 겪을 수 있다. 자녀교육 문제는 더욱 버릴 수 없는 화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체성 확립, 적극적인 미래 계획 수립, 지역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통합하고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이 고려해야 할 국가 건설의 문제이기도 한다.

제 2 장. 다문화가족의 배경

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다. 대한 민국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법률인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있다.

「국적법」 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 조 내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

1.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였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2. 대한민국 국적법은 다음의 경우에 출생한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태어나기 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님이 모르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등으로 나뉩니다. 다문화 가정은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가정을 지칭하는 개념 있다.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혼혈아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 있다.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의 한국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고, 남북 전쟁이 끝난 후 현지에 주둔한 미군과 한국 여성들부터 이미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많은 유

학생들이 생겨났고, 이 젊은이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일하면서 현지인들과 연애했 확률이 높아져 새로운 국제결혼 단계가 생겼다. 이때쯤이면 우리 국민은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가 많이 개선되고 습관이 되면서 이런 결혼 패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농촌 남성 청년들이 자신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조선족 동포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지역의 주요 방식이 되었다.

한국은 현재 이민자 인구 증가기이지만 아직 젊은 이민 국가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출생치는 OECD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다. 다양한 이유로,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것이 한국 농촌 남성의 결혼 문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주한 외국인은 2025년 전체 인구의 8%인 400만 명에 이를 전망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증가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며, 경기 부양에 편리하고 잠재적인 치안 위험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다루기 귀찮기 때문에 외국인 입국 정책을 잘 짜고, 분야별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장. 한국 다문화가족의 주요 국가조합

대부분의 외국인 여성들은 K-Pop 문화와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한국을 찾는 주요 홍보 방법이 되고 있다. 정착하는 뒤 고향 친척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인 여성도 있다. 한국의 많은 지자체가 다문화가정의 농촌 이탈을 막기 위해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다문화가정을 형성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외력에 의해 현지 생활질서가 훼손되

지 않도록 국제결혼지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여성 가족부의 전국 다문화 가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 다문화결혼 비중은 8.3% 있는데 국제결혼은 외국인 아내의 수가 외국인 남편보다 많고 베트남인과 중국 조선족 동포가 주요 국제결혼자 있다.

제 1 절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 가정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주요 집단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있다. 한국의 육아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베트남 여성들이 이곳에 머물며 일하다가 소득 전액을 고향 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의 결혼에 대한 중요도가 높지 않고, 가족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다. 물론 베트남 여성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만들어지는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국제결혼이 더 잘 되고 한국 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더 잘 발전할 수 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신의 출신지를 떠나 자신이 잘 모르는 지역으로 공부나 일을 하러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 결혼의 경우, 이러한 기반에 더 많은 어려움이 추가되었다. 베트남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는 주로 현지 주둔 미군과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다. 1970년대부터 지역이 확대되어 자국뿐만 아니라 북미, 호주, 유럽에서도 베트남인들의 국제결혼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6년 사회개혁 이후 국제결혼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빈번해지기 시작하면서 국제결혼의 발전도 대중화되었다.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국가적 발전의 이유 외에도 남녀 비율

의 문제 있다. 베트남 전쟁의 영향(프랑스, 미국, 중국, 내전)으로 인해 베트남은 성비 격차가 큰 나라 있다. 남성은 적고 여성은 많다는 점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베트남과 한국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 있다. 베트남은 인구연령구조가 젊은 나라로 30 세 이하 인구의 60%가 결혼연령을 여성 18 세, 남성 23 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베트남은 현재 국가발전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혼을 일찍 하고 결혼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 반면 한국은 남아선호, 가문의 혈통 대물림 사상이 심각한 나라 있다. 1980 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젊은 남성들이 짝을 찾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 노령 남성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 결혼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업데이트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 결혼은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을 국제 결혼이라는 형식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양국의 외교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고 교통과 통신의 보조로 인적 왕래가 빈번해졌을 때, 베트남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데, 주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으로 많이 이주하여 한다문화가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여성들이 대거 이주한 데는 한류가 한몫했고 예능, TV, 영화, 노래를 통해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의 생활상을 알려줬다. 그리고 양국의 무역, 한국의 의류, 화장품, 자동차의 수출,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로서 베트남 여성들에게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결혼하면 고향보다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도 나이도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이유 있는데 베트남에

서는 일반적으로 결혼 연령이 빠르고 여성은 25 세 이전에 결혼하기 때문에 이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현지 사회에서 결혼이 어렵다. 하지만 브로커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나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젊다. 그래서 한-베 국제결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역시 경제와 연령의 문제 있다.

제 2 절 한국과 중국의 국제결혼 가정.

중한 양국은 1992 년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전에는 여러 분야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결혼은 거의 없다. 양국 국민 사이에서도 잘 모르고 민간의 상호 정보 파악 정도가 낮다. 소량의 국제결혼도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족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한중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한국의 다문화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양국 무역의 성장은 많은 산업 발전을 이끌었고 그 중한 국제결혼이 있다. 중국과 한국은 이웃 국가로서 유교 문화권에 속하며 양국 국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제결혼은 매우 드물었지만 개혁개방 이후 이런 양상은 급속히 타파됐다. 외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가 적극적이고 관용적으로 변하면서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대거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식, 특히 일본과 한국의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동시에 현대 젊은이들은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있어 더 자율적이며 부모의 영향을 덜 받는다. 현재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국제결혼이 매우 흔한 일이 되었으며, 외국인 전용 작업 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외국인 대상 정

책과 서비스를 형성하고 있다. 국제 결혼의 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했다.

전반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이웃 국가이고 국제 결혼 분야는 현재 성장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양국의 국제 결혼 발전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양국 정부가 사전에 과학적인 계획을 세워 국민 결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중 국제결혼의 발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제 3 절 한국과 일본의 국제결혼 가정

한일 국제결혼은 장점이 많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있다. 사람들의 일상 생활 습관과 매너도 비슷하다. 언어는 다르지만 두 나라 언어의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언어를 배우기가 쉽고 배우는 시간이 조금 덜 걸릴 것이다. 그래서 한·일 국제결혼은 다른 국제결혼에 비해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훨씬 적다.

한일 간 국제결혼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비교적 이른 시기 있다. 많은 한·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한국 사회에 들어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 남성들은 일본 여성을 좋은 결혼 상대로 보고 있다. 일본 여성의 근면과 경제성, 작은 가정환경과 사회환경에서 길러진 온유함과 겸손함 일본 여성의 경우 한류 드라마 노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유학이나 관광을 통해 입국했다. 한류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친숙한 집단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결혼에서 한국남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한국남성을 우선으로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게 된다. 한류는 한일 국제결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한일 국제결혼은 두 단계로 나뉘져 있다. 해방 전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사랑 외에 무엇보다 삶을 위해서였다. 이것이 해방 전 가장 보편적인 이유인데, 가정 여건이 좋지 않고 선택할 권리가 적기 때문에 부모의 지휘를 통해 운명과 타협하고 현실 생활을 받아들인다. 해방 전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선택한 목적은 비슷하다.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식민지배 시절의 한국 남성으로서 일본인 아내를 얻음으로써 일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생활도 좀 더 쉬워질 것이다. 특히 노동임금 면에서는 다른데 아내가 일본인이면 보통 한국 가정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현대 한·일 국제결혼 접촉은 주로 제 3 국에서 이뤄지는데, 한국이나 일본보다 영어권 국가에서 국민 연애 비율이 더 큰 유학생 집단 있다. 어느 나라에서 만나든 연애 절차는 기본적으로 유학을 마치고 짧은 시간 동안 장거리 연애를 계속한 뒤 결혼하는 것은 대부분의 일본 여성들은 결혼하면 남편의 나라에서 살 것이다.

제 4 절 대한민국 필리핀의 국제결혼 가정

역사적 이유로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은 매우 보편적인 일 있다.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서구 사회의 가치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 (CFO) 자료를 참고로 필리핀 여성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 필리핀 국제결혼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 현재까지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있다. 주된 이유는 역시 한국의 발전으로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건너가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다. 필리핀은 해외 노동자 수출국 중 하나로 많은 해외 이민자의 출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현지 생활 환경에 익숙하여 이러한 그룹이 더 발전된 곳에서 살고 싶어한다. 한국과 미국은 필리핀 이민의 주요 타깃 국가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필리핀 이민자 인구가 많고 다문화 가정도 많이 구성돼 있고 역사도 좀 더 길기 때문에 한국 필리핀은 국제결혼이 시작단계인데 주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건너가 필리핀의 경제사정이 국제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 있다.

필리핀의 사회 환경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해외로 일하러 가거나 해외로 직접 이주하여 살고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서는 발전이 더딘 나라 필리핀에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데, 이는 필리핀 고유의 구조적 문제 있다. 심각한 빈곤과 불평등,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고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고 낙후된 농업에 대한 국내외 자본 투자가 부족하다. 필리핀 스스로 겪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 동남아 전역의 불평등은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다. 필리핀의 빈곤층은 대부분 농촌에 있는데, 이는 정부의 토지 개혁 실패 때문이다. 이는 고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전과 과학기술의 한계로 인해 필리핀의 발전이 더디고 외부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촉진했다.

필리핀과 한국은 1949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필리핀은 고대에 유교문화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생활양식과 풍습이 한국과 비슷하다. 1990년대 들어 한국 기업이 직접 투자하면서 양국 이주자가 늘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가 끝난 뒤 필리핀에서 한국인 수가 급격히 늘어 한인 전문학교 외에 현지에서 한인 단체도 결성됐다. 또한 한국 도시와 필리핀 도시 간의 교류도 활발하여 우호적인 교류 도시가 많이 생겨났다.

앞으로도 한국과 필리핀의 국제결혼 발전은 계속 건강하고 안정될 것이다.

제 4 장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국제 결혼은 종종 인종적 편견, 양국의 정치 외교적 영향, 문화적, 음식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세계 각 지역의 교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강해질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누구나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 1 절 언어 능력

다문화가정 자녀가 겪는 첫 번째 문제이자 부모가 겪는 첫 번째 문제, 바로 언어 문제 있다. 언어문제도 다문화가정 어려움의 핵심이며, 이 문제는 자녀의 발달 수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느 한쪽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공부하면서 생활하는 데는 언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인간이 언어에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시기는 유아기이며, 유아기에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단계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서툰 한국어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육하면 한국어 공부가 느려지고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지장을 받게 된다.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 언어 능력의 결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쓰기나 독해력이 저하될 수 있다. 처음부터 언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다문화 가정의 안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문제는 다문화 가정이 극복해야 할 핵심 문제 있다.

제 2 절 경제 문제

한국의 사회 상황에 따라 다문화 가정은 농촌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시보다 가구 소득이 낮다. 다문화가정에서 언어문제가 1 순위라면 경제문제는 2 순위일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정의 저소득층은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자녀들의 교육 정도나 기회에도 영향을 미쳐 다문화 가정 내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외국인 정착에 대한 정책, 국제결혼 취업 생활에 대한 도움을 강화해야 한다.

제 3 절 문화

국제결혼 이민자에게 개인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 부적응 있다. 한국인 남편이 이민 온 아내의 나라 문화에 관심이 없으면 아내 스스로 현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부부 간 문화 갈등, 나아가 부모와의 갈등을 일으키기 십상 있다.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실 남편뿐만 아니라 사회가 타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포용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다문화 사회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문화 자녀들은 문화적 정체성은 다르지만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억지로 한국 문화를 배우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문화적 차별감이 강화되고 자녀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 4 절 사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일반 가정보다 학교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을 받기 쉽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교육 시스템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더 심각한 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

서에서 관리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개념은 농촌, 저소득층, 후진국 이민자와 연결돼 있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피부색이 다른 자녀가 사회통합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외로움이 더 강해지고 집단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도 부모 출신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집단적으로 자국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움 중 하나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외에도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적극적으로 지역 문화를 배우고 지역 생활에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나이와 학벌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받는 것이 현지 적응의 방법은 다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종교 문제, 혹은 한국 전통문화와 전혀 다른 점이 있다면 모순점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는 유교 사상이 주를 이루는 나라로 전통 명절이 되면 조상을 그리워하는 제사를 지내지만, 이러한 활동은 이민자의 모국문화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으며,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으로 현지 생활에 적응하려는 상대방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한국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고,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아본 경험도 없다. 역사적으로도 주로 중국·일본과 교류했기 때문에 동북아 역외의 문화가 반도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컸다.

이러한 배경에서 극단적 민족주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도가 매우 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국제결혼 증가는 한국의 세계화 발전의 결과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은 소수민족이고

국가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이 높지 않다. 세계화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인구 이동이며 다양한 문화 접촉이 증가하고 도전 과제가 많아지며 첫 번째 어려움은 차별성 있다. 다른 가정과의 생활습관에서 차별성이 나타나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어렵게 하고, 교류도 어려워지면 이웃들과 불신이나 오해가 생겨 양측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국민은 관련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멀리하면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졌고, 취업은 지위가 낮은 일자리에 집중 된다. 고위험, 저소득, 낮은 사회복지는 다문화 가정 일자리의 특징 있다.

제 5 장 다문화가족의 교육 문제

지금 한국은 인구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부모님 중 한 명이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공정한 경쟁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문화가족 복지에 대한 지출이 많은 국가에서 전통 혼가정과 국제 혼가정은 서로 신뢰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높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한국 국적 취득자 가족, 그리고 '국적법'에 따른 한국 국적 취득자 가족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계 과학 기술 혁명은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편리하고 많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의 외국인이 정착하여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개념이 등장하고 현대 가족 유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을 발전시키는 밑거름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장점은 자녀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미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법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이 될 것으로 추정 된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연령은 20~30대로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가 더 융합되어 새로운 국가의 경쟁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출산율 향상에 대한 효과는 매우 크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과 중퇴 문제를 줄이거나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제 6 장.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문제 해결 방법 모색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부적응과 문제해결 방법 모색한다. 첫 번째 영역은 풍속 축제에서 지역사회의 통합 및 자신감 구축을 위한 방법 탐색 있다. 두 번째 분야는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연구한다.

다문화 교육에는 인종, 문화, 언어, 사회 계층, 성별이 포함된다. 그러나 많은 교육자들은 항상 인종에만 집중하고 다른 옵션은 무시하다.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각 도시의 학교에서 이민자 자녀가 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이라는 목표가 교과목의 내용이 되어 있고, 계속 수정하고 있는 중 있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자기 계발을 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을 채택하다.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교사 양성을 강화하고 전문 연구 센터를 구축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이 생활하는 사회 환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일반 학생의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식을 함양하다.

다문화 자녀 교육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의식과 다문화 지식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과정을 다 커버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 집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교육 내용 있다.

일부 학생들은 언어 문제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고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여 이중언어 학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문화 예비학교를 개설하고 지도 범위를 확대하며 다문화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강화한다. 체계적인 언어학습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원활하게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강화한다. 부정확한 다문화 교육은 갈등을 낳고 불평등은 영구화 된다. 다문화교육은 무조건적인 한국화 교육도, 외국인만을 위한 교육도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교육이 될 수 없다. 다문화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 쌍방향 다문화 교육해야 한다.

제 7 장. 결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13 만 4569 명으로 한국에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한다.

지난 15 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인 135 만 명 급증했고, 이들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직원은 15 명 늘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인구 추세는 고정된 미래라고 강조한다. 이대로 라면 한국은 10 년 뒤 이민자가 많이 몰려야 하고, 준비 없이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 있다.

이 글은 다문화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의 부족함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다문화 교육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정부나 민간단체 모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발전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국제 결혼은 역시 유학생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다문화교육이 파생되기 때문에 원천부터 관심을 가져야 과학적인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다.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부모도 미리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대학교육에 다문화 수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정규 교육을 받아야만 개인의 발전이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미래 다문화 가정의 건전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비고: 한국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 심사와 외국인 비자(체류자격) 관리, 영주 및 귀화 심사 업무, 국내 체류 외국인 등록 및 동향 관리, 통계 업무 등을 담당

하고 있다. 그 밖에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등 출입국범죄 단속이나 수사
업무, 난민 업무, 다문화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문헌

국내 자료

이민통계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 안전 행정부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김경식)

다문화사회와 역사교육(곽희정)

외국 문헌

《从民族团结的角度分析多文化教育政策》 中国民族大学

中国民政部

（韩国多文化家庭的子女教育问题研究）天津大学

《多文化教育概念分析 以联合国教科文组织相关文献为中心》 人民教育出版社

Multicultural Education(Arora)

원효의 불교 철학 ‘일심’, ‘화쟁’, ‘원융회통’으로 본
다문화 사회 속 한국 불교계의 역할

지도교수 서 은 숙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

정 유 진

2024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배경	2
제1절 한국의 다문화 사회	2
제2절 이주민의 종교와 불교공동체의 지원 현황	4
제3장 원효의 불교 철학	7
제1절 일심의 의미와 중요성	7
제2절 화쟁 정신의 역할	8
제3절 원융회통의 종합적 관점	9
제4장 다문화 사회 속 한국 불교계의 역할	10
제5장 결론	11
참 고 문 헌	13

제1장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급격한 다문화화의 변화 속에서 다양성과 상호이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종교와 문화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문화 현상을 원효의 3대 불교 철학인 일심(一心), 화쟁(和諍), 원융회통(圓融會通)을 통해 살펴보고, 한국 불교계가 다문화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23년 10월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2,496,092명으로 전년 당월 대비 13.5% 증가하였다. 이들 중 장기 체류 외국인인 1,858,699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7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다수가 태국·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네팔·스리랑카 등 불교국가 출신이다. 베트남·몽골 출신 중에서도 불교 신도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단체의 이주민지원 활동이 타 종교에 비해 불교계의 지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동남아국 출신의 불교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주민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기독교의 지원을 받아 개종하는 경우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일·전한성, 2016).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불교계가 한국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불교의 핵심 가치로 꼽히는 원효의 불교 철학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살펴본 후, 이주민에 대한 불교공동체의 지원 활동의 현주소와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원효의 3대 불교 철학인 일심(一心), 화쟁(和諍), 원융회통(圓融會通)을 기반으로 한 불교의 핵심 가치가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교계와 다문화 사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이 전통적인 한국 불교의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또한, 불교계가 가족 및 개인의 정서적,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통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 불교계가 지속적인 다문화 시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불교의 가치와 지혜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한국의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는 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형성된 사회를 지칭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집단이 공존하며, 다문화화는 종종 민족국가의 안정성에 도전을 제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정천구, 2013). 한국 또한 국제결혼과 외국 노동 인구의 유입으로 다인종 사회의 특징을 보이는 한편, 다문화 사회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실정도 있다.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별도의 민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 사회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을 제공한다. 국적이 다른 여러 인종의 이민자들이 한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이 독자적인 민족체를 형성하거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다문화 사회의 발전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여성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정부가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실정을 파악하고 그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모색 과정에서였다. 초기에는 1990년대 초에 도입된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처음 수용하였다. 이 시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단기적으로 교체되는 형태로 한국에 유입되었다. 2005년에는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등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하였다. 이는 단기간 고용 후 본국으로의 귀국을 목적으로 하는 교체 순환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체 순환정책은 이주 노동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체류기한이 끝난 노동자들 중 일부는 경제적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남거나 내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기도 하였다. 이는 교체 순환정책이 실질적인 귀국을 보장하지 못하고, 다문화 사회 형성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잡한 상황을 야기하였다(조수동, 2010).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종전의 출입국 및 외국인 노동자 활용 정책을 넘어서 이민 정책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였고, 국제결혼을 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다문화 정책의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접근을 시작하였다.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국제 이동과 이주, 그리고 글로벌화의 영향 아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이 2024년에 비전문 외국인력 16만 5000명을 받아들일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¹⁾ 이러한 다문화 국가로서의 변화는 정부의 외국 인력 도입 확대 정책에 따른 결과로, 이는 한국 사회의 인적 구성과 문화적 지형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함을 시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를 다인종·다문화 국

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9027005> (검색일: 2023. 12. 6.)

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이러한 범주에 들게 되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현재 고령 인구의 증가와 출생률 하락으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특히, 내외국인 간 갈등은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피부색, 종교 등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기존의 동질성 중심의 사회통합 모델을 벗어나 다문화적 현실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혈통과 국적에 대한 제한된 기준을 넘어 인종적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포용할 수 있는 불교의 철학적 대안이 필요하다.

제2절 이주민의 종교와 불교공동체의 지원 현황

종교는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신념체계이자 문화의 핵심으로 작용하여, 공동체 내부에서의 통합과 안정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사회에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이는 다종교적 상황을 형성하며 통합과 갈등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종교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동시에, 종교조직을 통해 국가별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주민들 간의 결집을 촉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통로를 제공한다. 종교조직은 상대적으로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용이하며, 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신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주민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통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기관은 종교적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며, 종교적 가치에 따른 봉사와 지원을 통해 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이상지, 2015).

한국 불교는 동북아시아 불교문화 전통 속에서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천주교,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와의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슬람교를 비롯한 이웃 종교의 영향도 더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남방불교와 티벳불교의 영향도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민족불교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실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조적인 새로운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요구되고 있다(김방룡, 2013). 1990년대 중반부터 불교계가 이주민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고도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급증으로,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특히 이주민에 대한 임금체불, 폭행 등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응해야 했다. 이에 기존에 가톨릭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이주민 문제에 불교계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을 중심으로 이주민 지원이 시작되었고, 중후반에는 승려와 다양한 단체들이 출범하여 본격적인 불교계 이주민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때 구의동 사찰에서 개최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인간방생 기원법회' 등의 행사가 열렸고, 다수의 사찰이 이주민 문제에 대한 활동을 시작하였다(김선임, 2012).

1990년 중후반에는 불교계 이주민 지원이 주로 의료취약계층인 이주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선재마을의료회'는 1999년에 창립되어 서울 강남 조계종 소속 봉은사에서 진료를 시작하였고, 2001년 이후 서울역진료소, 2003년에는 부친 석왕사진료소를 설립하여 활발한 의료 활동을 전개하였다(여오숙, 2012)²⁾. 2007년에 창설된 '마하의료회'도 이주민 진료 활동을 펼치며 꾸준한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봉은사진료소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정기적인 의

2) <https://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293> (검색일: 2023. 12. 6.)

료봉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의료봉사를 실시하며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³⁾ 또한 불교계 내에서는 이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줄 다양한 지원 단체들이 생겨났다. 진오 스님이 2000년에 설립한 '꿈을이루는사람들', 정호 스님이 '행복한이주민센터', 도제 스님이 '아시아밝음공동체' 등 각각 이주노동자 쉼터를 설립하여 인권상담소, 한글학교, 법회, 휴식 공간 등을 마련하였다.⁴⁾

2000년대 초반에는 이주민에 대한 불교계 내부의 인식이 성숙해지면서 조계종은 중단 차원의 이주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전문 인력이 투입된 이주민 전담 단체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불교계 단체들이 이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2004년에 이주민불교지원단체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2007년에는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로 개칭하며 이주민 지원에 더 많은 힘을 기울였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거주 이주민 불자들을 돕기 위해 조계종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에 방역물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⁵⁾

2010년대에도 이주민 지원 사업이 계속되었지만 주로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강조되었다. 전주 참좋은우리절은 (사)착한벗들을 설립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에 주력하였다. 오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1년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용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오산 대각사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대안학교로 '행복한 학교'를 2013년에 설립하여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다문화가정에서는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위한 '달팽이모자원'이 개소되었다. 범보신문은 2016년에 공익법인 '일일시호일(日

3) <https://www.btn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55193> (검색일: 2023. 12. 6.)

4)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706> (검색일: 2023. 12. 6.)

5) <https://www.gg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57> (검색일: 2023. 12. 6.)

日是好日)’을 설립⁶⁾하여 이주민의 병원비 지원, 2019년에는 한국다문화 불교연합회 창립을 지원하고 영등포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이주민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도 부산의 ‘베트남 하노이 빌리지’, 천안의 ‘선재원’, ‘JTS 안산 다문화센터’ 등과 같은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통번역 상담원 양성과 다문화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이 전개되었다.⁷⁾

이처럼 불교계의 이주민 지원이 20여 년 전에 비해 단체 및 지원 제도들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불교문화권 출신 이주민 집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모국 문화와 우리 사회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유입되거나 장기체류하는 이주자들의 다수는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과 같은 불교문화권 출신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함으로써, 불교계는 우리 사회로의 적응과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조성희, 정영순, 2021).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낮은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부족하며, 체계적인 조직체의 부재로 인해 제약이 있다. 특히 천주교와 개신교의 왕성한 이주민 지원 활동과 비교하면, 불교의 이주민 지원 활동은 이들에 대한 관심 부족과 종단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김종일, 전한성, 2016).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내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교육 활동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체 구성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으로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http://www.igoodday.co.kr/com/com-1.html> (검색일: 2023. 12. 6.)

7)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506> (검색일: 2023. 12. 6.)

제3장 원효의 불교 철학

원효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서,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깨달음은 많은 이야기와 설화로 전해져왔다. 특히, 그의 구도(求道)를 위한 여정과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셨을 때⁸⁾ 얻은 진정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원효의 사상에서는 ‘일심사상, 화쟁사상, 회통사상’ 등이 돋보이며, 이를 통해 ‘이곳과 저곳’의 구분과 ‘나와 남’의 구분이 없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깨달음이 드러난다. 이는 도가(道家)에서 언급하는 상선약수(上善若水)와도 일치하며, 그가 진정으로 깨달았음을 반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해석된다(탁양현, 2018: 40).

평화는 우선적으로 개인 차원에서의 내면적 안정과 사회 차원에서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원효 사상에서 강조하는 일심과 화쟁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이 개념을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내면적인 일심은 개인의 마음속에서 싹트는 평화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화쟁은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 간 뿐만 아니라 집단 간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원효는 이러한 화쟁을 통해 사회적 평화를 추구하려 했다. 그는 민중에게 정토신앙을 전하고, 노래와 춤을 통해 불교의 복잡한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불교를 대중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평화의 기반을 다지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탁양현, 2018: 142).

8) 이 해골물을 마셨다는 이야기 자체는 송나라 말기에 저술된 임간록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후대에 등장하는 요소이다. 이와 다른 일화로는 원효가 하룻밤 묵은 거처가 동굴이 아닌 해골이 텅굴고 있는 무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김영일, 『화쟁사상』, 17~18쪽).

제1절 일심의 의미와 중요성

원효의 일심(一心)사상은 한국 불교의 핵심을 이루며,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이 사상은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개념에 기초하며, 이는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생명이 하나의 근원적 실체에서 비롯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의 일심 사상은 도(道)가 모든 존재에 미치지만, 결국엔 하나의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완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하나로 돌아가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생명에게 차별 없이 사랑과 이로움을 베풀어야 한다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김강녕, 2012). 또한 원효는 일심을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이는 깊은 영적 진리를 통찰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차별과 분별이 소멸되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모든 중생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이상적 상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원효의 일심 사상은 세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일심은 존재의 근원을 의미한다. 원효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마음, 즉 일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심이 단지 우주의 근원적 실체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일심은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한다. 일심의 인식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분별을 넘어서는 깨달음의 경지로 이끈다. 원효에 따르면, 이 경지에 도달하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가 실현된다. 셋째, 일심은 화합과 통일의 원리를 의미한다. 원효는 일심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의존적임을 강조한다. 이는 모든 존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원효의 일심 사상은 단순한 철학적 이론을 넘어서,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합과 공존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됨을 알 수 있다. 이 사상은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현대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며, 다양성과 조화를

중시하는 오늘날 사회에 깊은 영감을 제공한다.

제2절 화쟁 정신의 역할

원효의 화쟁(和靜) 정신은 한국 불교 사상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모든 존재의 상대성과 일심 사상을 기반으로 갈등 해결의 방법을 제시한다. 화쟁 사상은 중도(中道)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며, 절대적 진리의 부정을 통해 모든 이념과 가치가 상호 보완적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화쟁은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화쟁은 갈등과 분열의 극복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원효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도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 사이의 갈등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화쟁 정신은 이해와 존중을 통한 갈등 해소의 원칙을 제공한다. 둘째, 화쟁은 다양성의 수용과 상생의 촉진에 기여한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일심 사상에 기초하여, 원효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라고 본다. 이 원칙은 문화, 종교, 계층, 성별, 인종 등 다양한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태도를 강조한다. 셋째, 화쟁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한다. 원효의 이 접근법은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 특히 중요하다. 화쟁 정신은 갈등을 넘어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조화를 추구한다.

종합하면, 원효의 화쟁 정신은 불교의 중도 사상과 일심 사상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용 가능한 갈등 해결과 조화로운 공존의 방법을 제공한다. 갈등의 해소, 다양성의 수용, 그리고 상생의 촉진을 통해, 화쟁은 개인, 사회, 그리고 문화 간의 조화로운 관계 구축에 기여한다.

제3절 원융회통의 종합적 관점

원효의 철학에서 '원융회통(圓融會通)'은 원효의 철학에서 '원융회통'은 불교 내부의 종파적 대립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광범위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 사상은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성 속에서의 통합을 추구한다. 원융(圓融)은 갈등 없는 조화로운 상태를, 회통(會通)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통합되어 전체를 이루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은 불교의 깊은 이해와 논리를 통해 다양한 입장과 가치를 포괄하는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원융회통은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드러낸다. 첫째, 원융회통은 대립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갈등 관리에도 중요한 원칙으로, 다양한 문화와 이념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둘째, 원융회통은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로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적, 문화적, 심지어 정치적 차이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관점을 필요로 한다.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 이러한 접근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 작용과 통합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셋째, 원융회통은 단순히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과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하여 보다 평화롭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환경, 사회적 불평등, 국제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원효의 이러한 원융회통 사상은 단지 종교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현

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갈등 해결과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사상적, 문화적, 심지어 정치적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인 가치와 이념의 통합을 모색하는 현대 사회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효의 일심, 화쟁 그리고 원융회통의 사상은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양성과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제4장 다문화 사회 속 한국 불교계의 역할

원효의 '일심', '화쟁', 그리고 '원융회통'이라는 철학 사상을 토대로, 불교계는 다양한 문화와 신념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상호 이해, 조화,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첫째, 원효의 '일심'과 '화쟁'은 내면의 평화와 외부와의 조화를 강조한다. 원효의 철학적 근간인 '일심'과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계는 다문화 사회 내에서 내면적 평화와 외부 세계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문화 및 신념 체계를 존중하며, 이들 간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불교계는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원효의 '원융회통'은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함으로써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갈등 해소와 통합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의 실현에 중점을 둔다. 불교계는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간의 대화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며 평화적 공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신자들이 공존하고 있다. 불교는 이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신자들에게 지

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불교계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식하고, 원효의 가르침을 현대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삶의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신자들에게 내면적 안정감과 평화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원효의 사상은 갈등 해소와 평화 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불교계는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다문화 사회 내에서 불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불교계는 정부, 기업, 비영리 단체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재정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계는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 평화로운 공존과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한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형성으로 인해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불교계는 한국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해 살펴본 후, 이주민에 대한 불교 공동체의 지원 활동의 현주소와 과제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효의 3대 불교 철학인 일심, 화쟁, 원융회통을 기반으로 한 불교의 핵심 가치가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포용할 수 있는 불교의 철학적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불교 공동체는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었으나, 이주민의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종교적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효의 3대 불교 철학인 ‘일심, 화쟁, 원융회통’의 가치를 활용하여 이주민에게 필요한 종교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일심 사상은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통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화쟁 사상은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원융회통 사상은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원효의 3대 불교 철학을 바탕으로, 불교계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원효의 철학적 근간인 ‘일심’과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계는 다문화 사회 내에서 내면적 평화와 외부 세계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불교계는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원융회통’ 사상을 적용하여, 불교계는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간의 대화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며 평화적 공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자들에게 원효의 가르침을 현대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삶의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원효의 사상은 갈등 해소와 평화 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불교계는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 사회 내에서 불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불교계는 정부, 기업, 비영리 단체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재정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불교계가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 존중, 이해 증진,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종교적 삶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

해, 이주민의 요구에 맞는 종교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불교 공동체와 정부,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불교계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교계는 다문화 사회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불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탁양현, 「일심과 화쟁 그리고 무애행과 원융회통의 불교철학, 원호철학」, 서울 : 퍼플, 2018.

김영일, 「화쟁사상」, 서울 : 혜안, 2019.

나. 연구논문

김강녕, “제2장 원효의 평화사상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제6권 제1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12.

김방룡,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정체성 문제”,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19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3.

김선임, “이주노동자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다문화 실태와 불교적 대안”,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0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

김종일, 전한성, “이주민 사회 현황과 불교의 역할에 관한 소고 -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모형 제안 -”, 동아시아불교문화, 제26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6.

여오숙, “한국 불교계에서의 이주민 의료 지원 사업의 현황과 과제 -대한불교조계종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64호, 한국불교학회, 2012.

이상지, “이주민관련 종교NGO들의 지역사회 내 역학관계 연구 : 천주교, 개신교,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15.

정천구, “불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19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3.

조성희, 정영순, “다문화 복지영역 안전망 구축과정에서 불교계의 역할 다문화 복지서비스제공자의 활동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제10권 제1호, 한국융합과학회, 2021.

조수동, “다문화와 한국불교의 화쟁사상”, 철학논총, 제60집, 새한철학회, 2010.

2. 참고 웹사이트

[사설] 아시아 첫 다문화국가 한국의 과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9027005> (검색일: 2023. 12. 6.)

“병원비 없어 아파도 참는다면 봉은사로…”
<https://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293> (검색일: 2023. 12. 6.)

국내외 소외이웃에 자비의 인술 펼치는 마하의료회
<https://www.btn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55193> (검색일: 2023. 12. 6.)

[심층취재-이주민 시대의 한국불교] 2. 이주민을 돕는 스님들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706> (검색일: 2023. 12. 6.)

조계종, 마주협에 마스크 1만 장 전달
<https://www.gg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57> (검색일: 2023. 12. 6.)

일일시호일 홈페이지

<http://www.igoodday.co.kr/com/com-1.html> (검색일: 2023. 12. 6.)

[심층취재-이주민 시대의 한국불교] 1. 불교계 이주민 지원 현황과 과제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506> (검색일: 2023. 12. 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23, 10월호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7/577439/artclView.do> (검색일: 2023. 12. 6.)